東亞日報

會長 金相萬
社長 金聖悅
發行人 金炳琯
編輯人 權五琦
印刷人 韓甲洙
編輯局長 南時旭
서울鍾路區世宗路139(우110)
電話案內 721-7114
編輯局 721-7241
廣告局 721-7755
購讀申請·配達事故 721-7575
出版局 783-5111
文化센터 783-5231
購讀料 月定 2,900원 1部 14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 東亞日報社 1987

直選制憲法 확정

국민투표 78.2% 찬성 93.1%

국민투표개표 최종집계

<중앙선관위>

구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	기권	투표율(%)	찬성투표율(%)
			찬성	반대	계				
합계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3.1
서울	6,393,728	4,183,386	3,921,067	207,300	4,128,367	55,019	2,210,342	65.4	93.7
釜山	2,259,577	1,636,843	1,515,709	96,967	1,612,676	24,167	622,734	72.4	92.6
大邱	1,262,486	935,896	869,421	54,860	924,281	11,615	326,590	74.1	92.9
仁川	933,522	667,579	624,513	33,397	657,910	9,669	265,943	71.5	93.5
光州	513,958	337,047	312,441	20,516	332,957	4,090	176,911	65.6	92.7
京畿	3,284,968	2,674,509	2,498,639	125,272	2,623,911	50,598	610,459	81.4	93.4
江原	1,042,573	905,700	841,597	51,245	892,842	12,858	136,873	86.9	92.9
忠北	852,999	737,332	681,548	44,142	725,690	11,642	115,667	86.4	92.4
忠南	1,781,759	1,598,503	1,486,264	89,423	1,575,687	22,816	183,256	89.7	93.0
全北	1,296,644	1,092,510	1,009,932	66,960	1,076,892	15,618	204,134	84.3	92.4
全南	1,660,186	1,466,305	1,361,788	82,287	1,444,075	22,230	193,881	88.3	92.9
慶北	1,882,286	1,728,173	1,606,634	96,308	1,702,942	25,231	154,113	91.8	93.0
慶南	2,177,019	1,838,563	1,699,659	112,446	1,812,105	26,458	338,456	84.5	92.4
濟州	277,943	226,326	211,413	11,579	222,992	3,334	51,617	81.4	93.4

내일 閣議의결 公布

정부는 대통령중심직선제 새헌법이 27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됨에 따라 29일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뒤 대통령명의로공포한다。

새헌법은 27일의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8·2%가 투표, 투표자의 93·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확정됐다。

27일오후6시 투표완료에 이어 전국2백4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철야로 진행된 개표작업은 28일 새벽 1시10분경 전국개표율이 53·9%를 기록한 시점에서 찬성표가 총투표자수의 과반수인 1천1만6천1백39표를 돌파,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번 국민투표의찬성률93·1%는 역대 여섯차례의 국민투표중 최고의 찬성률로 전국 市道별로도 모두 92%를 넘는 고른 찬성률을 보였다。〈2면에 관련기사〉

중앙선관위는 29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결과를 최종공포하고 이를 정부에 통고한다。

한편 지역별로 최고의 투표율은 慶北 91·8%, 최저는 서울로 65·4%였으며 개표구별로는 최고가 忠南大德郡 98·9%, 최저가 서울江東區 63·2%였다。

大統領선거 12월15일 내정

政府·與黨

정부와 民正黨은 13대 대통령선거일을 오는 12월15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의 한 소식통은 28일 「12월20일내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는 與野합의에 따라 일정을 검토한 결과 週初와 週末을 피한 15일(화요일)이 가장 적합한 날이란데 黨政간에 의견 절충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정부의 대통령선거일 공고도 11월15일경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안확정에 따라 대통령선거법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통령선거 준비절차도 12월10일까지 충분히 끝낼수 있을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선거일정은 추후의 黨政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民主定着위한 礎石

與野 憲法확정논평

民正 民主양당은 28일 새헌법 확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民正黨李敏燮대변인=우리 헌정사의 정치기적을 이룰 역사적인 헌법개정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된것을 크게 환영한다。개정헌법의 탄생은 국민여망에 따라 이루어진 6·29선언의 가장 큰 결실로 이땅에 민주정치 정착화를 위한 초석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民主黨金泰龍대변인=헌정사상 최초로 與野합의에 의해 마련된 개헌안을 국민이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시켜준데 대해 크게 경하해마지 않는다。아무쪼록 새헌법이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投票 적극참여 다행

尹중앙選管委長

중앙선관위 尹一泳위원장은 28일오전 국민투표를 마치며 담화를 발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우리 모두의 뜻이 담겨진 훌륭한 헌법이 마련된것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경축해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尹위원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전기가될 국민투표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 준데 대해 감사하며 이번국민투표가 그 어느때보다도 평온하고 질서있는 분위기속에서 순조롭게 마치게 된데 대해 경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표출된 우리 모두의 성숙된 질서의식과 높은 민주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각종선거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金大中씨 出馬·創黨 선언

국민和解 正義경제등 5大公約 제시

30일 發起人대회 11월10일전 中央黨창당

民主黨의 金大中고문은 28일 대통령출마를 공식선언하고 新黨창당도 아울러 선언했다。

金고문은 이날오전 서울汝矣島 여성백인회관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이땅의모든 국민에게 정의와 생존권이 보장되고 자주의 바탕위에서 통일에의 초석을 닦는 화해의 시대를 열기를 제창하면서 대통령출마의뜻을 존경하는 국민앞에 밝힌다」고 선언했다。金고문은 이어 계보사무실인 民權會에서 내신기자들과 다시만나 新黨창당 방침을 밝혔다。

金고문의 東橋洞系는 당초예정을 앞당겨 30일 新黨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金고문을 창당준비위원장에 추대키로했다。〈3면에 관련기사〉

東橋洞系는 이어 당초예정보다 적은 규모인 30개정도의 지구당을 우선적으로 창당해 11월10일이전에 중앙당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金고문은 이날오전 대통령출마선언에서 △국민화해 △정의경제 △군부중립 △자주외교 △통일추진등 5대공약을 제시하고 「이 과업달성의 책무를 맡도록 기대하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며 나자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충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金고문은 「정당차원의 단일화를 넘어서서 6월투쟁에 참여한 전체민주세력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세력의 단일후보가 된것은 최대의 영예이자 격려로 생각한다」면서 「나는 정의의 실현자이자 안정의 수호자가 되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내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일 것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5대공약중 특히 「군부중립」부분에서 「지금 야당일각에서 비토그룹운운하며 이를 후보선정의 기본조건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개탄해 마지않으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하지않을수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新黨을 창당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 직접적이고 가장 큰 동기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金고문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金泳三총재와의 노선차이에 대해 「군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국민생존권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5대공약중 「국민화해」부분에서 「나는 정치보복을 반대하며 독재정치는 용서할 수 없으나 독재자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망국적이고 전근대적인 지역감정의 타파에 앞장설것」이라고 다짐했다。

金고문은 이날 출마선언에 따라 금명간 民主黨을 탈당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新黨에 동참할 東橋洞系의원들중 지역구의원들은 곧 지구당해체절차를밟아 원외당원들과 함께 일괄탈당키로 했으며 전국구의원들은 금명간 民主黨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民權會는 院外당직자들에게서 28일부터 탈당계를 받아 30일경 일괄제출할 예정이다。

東橋洞系는 28일오후 金고문주재로 중진회의와 소속의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新黨창당및 民主黨탈당일정을 결정하는 한편 행동통일을 다짐한다。

이날 金고문의 회견에는 東橋洞系의원 31명중 21명이 배석했다。

28일오전 대통령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는 民主黨의 金大中고문。

單一化가 軍政종식의 길 金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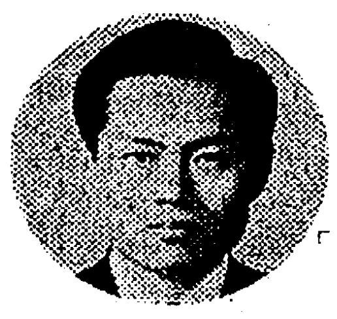
民主黨 金泳三총재는 金고문의 독자출마선언에대해 「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온국민의 여망이자 軍政을 확실하게 종식시킬수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金고문이 民主黨을 떠나 따로 출마하겠다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면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지못해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金고문이 黨內경선에 의한 후보단일화도 거부하고 끝내 黨을 떠나는것이 軍政종식이라는 국민여망에 과연 부응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民正 水原-華城지구당 위원장 朴志遠씨 선출

【水原=崔圭浩기자】 民正黨은 28일오전 水原시민회관에서 盧泰愚총재가 참석한가운데 京畿 水原-華城지구당개편대회를열고 신병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사퇴한 李秉禧의원후임으로 朴志遠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都在承서기관 석방설

레바논TV 보도 "健康양호 안전場所로 인도"



都在承서기관

【파리聯合】 지난 86년 1월31일 西「베이루트」에서 납치됐던 都在承서기관이 26일(이하 현지시간)납치범들로부터 풀려났다고 「레바논」기독교계 LBC TV방송이 27일밤 보도한것으로 알려졌다。

LBC TV는 「아랍語」마감뉴스보도를 통해 「都서기관이 26일밤 석방돼 모처로 옮겨져 안전한 보호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TV는 都서기관의 석방뉴스를 전하면서 都서기관인지 누구인지 확인할수 없는 한사람이 가면을 쓰고 손이 뒤로 묶여있는 모습을 비춰줬다。

LBC TV의 都서기관 석방보도는 「레바논」의 한정통한 소식통이 聯合통신 「파리」주재 特派員에게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都서기관이 납치범들로부터 풀려나 「레바논」회교온건세력인 「아말」파에 인도돼 27일 현재 이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都서기관의 석방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말」파 지도자 「나비 베리」「레바논」법무장관이 이날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都서기관의 석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 소식통은 「아말」파와 가까운 자신의 한 친구가 27일 都서기관을 西「베이루트」시내의 모처에서 목격했으며 都서기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都서기관이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으며 남은 문제는 都서기관의 신병인수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인근국가의 한 한국공관소식통은 都서기관의 석방소식에 관해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석방된다면 그를 인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都서기관은 지난해 1월31일 西「베이루트」에 있는 대사관으로 출근하던중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후 지금까지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조차알려지지 않았었다。

「레바논」에는 현재 미국인을 포함, 2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최소한 수개월이상씩 납치된채 풀려나지않고있다。

外務部, 확인 긴급지시

외무부당국자는 28일 오전 「레바논」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都在承서기관이 석방돼 모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레바논」의 LBCTV 방송보도와 관련, 「현지공관에서 아직까지 그같은 내용이 보고된바는 없으며 확인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외무부로서는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현지공관에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3國大使 信任狀받아

全大統領

全斗煥대통령은 28일 신임 「리처드 필립 블로노브스키」駐韓濠洲대사, 「이반 디아스」駐韓 교황청대사, 「모아시르 모레이라 말틴스 훼레이라」駐韓「브라질」대사로부터 각각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吳在熙駐英대사 崔相鎭駐「폴란드」대사 文基烈駐「자메이카」대사 李龍勳駐「칠레」대사 金太智駐印度대사 金奉奎駐「스리랑카」대사에게 각각 신임장을 수여했다。

횡설수설

봄현듯 한장의 사진이 떠오른다。囚衣를 걸친채 풀려나오는 중년의 여인, 그의 허리는 40대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굽어보인다。이른바 尹景花보살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갑을 찼던 高淑鍾부인의 사진이다。마침내 무고함이 밝혀져 풀려났던 그는 휘어진 허리를 얼싸안으며 이렇게 말한다。「하느님, 다시는 저와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5년전의 그 절규가 귓전에서 再生된다◆그 미국의 「프랭크」판사가 말하는 無罪인 有罪人은 그밖에도 허다하다。여대생 살해사건의 십자가를 졌던 鄭獻巴씨, 세상의 뜨거운 관심을 끌지도 못했던 살인사건의 「眞犯」으로 몰렸던 金詩勳씨등의 이름도 그중의 일부일뿐이다。이번엔 다시 「억울한 옥살이」의 투신자살사건이 전해온다。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갇혀있다가 대법원의 무죄선고로 풀려난 李哲熙씨의 悲報는 거듭 誤判의 두려움에 전율케 한다◆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나, 유서등을 남긴 점으로 미루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건 거의 확실하다。더러는 「이것도 司法殺人」이라는 극렬한 지탄마저 들려온다。사법의 선고는 짧은 시간에 내려진다。그러나 그 波紋은 이렇게도 엄청나다。때문에 良心의 법관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건 神과 피고인 자신뿐」이라며 不眠의 밤을 지새우는지도 모른다。법관의 말한마디, 그 중량은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생명의 岐路를 가른다◆더구나 이번 사건은 이른바 「外風」이 끼어들만한 정치적사건도 아니다。사법의 「順風」속에도 오판은 끼어든다。하물며 「外風」이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까。그걸 걱정하는건 정작 杞憂일뿐인가。李哲熙씨의 투신자살은 이래저래 우리의 가슴을 어둠으로 물들인다。역시 인간을 심판한다는건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프랭크」판사의 충언그대로, 訴追와 심판에 종사하는 법률가의 첫째 의무는 유죄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오로지 正義가 행해지기를 추구하는데 있음을 천번만번 절감한다。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보험상담:784—7962
대한생명

10월의 신제품
가장 경제적인 업소용 첨단 리니어 난방기
대우리니어 로타리히터
●센서와 마이콤회로가내장되어 컴퓨터식으로 공기와 연료의 양을 조절하므로 완전연소가능
●실내공기를 체크하여자동으로 환기시점을 알려주는 환기센서 내장
●7중 안전장치 채택으로 안심하고 사용
HR-150 (9평~30평), 권장소비자가격 : ₩379.000
전화주문 : 02)753-8282
대우전자

한미약품
腸의 보약
효과로 먹는 ——— 고농축 유산균
메디락 에스 캡셀

속쓰림에 미란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조흥은행과
KAL월드투어가 여는
꿈의 세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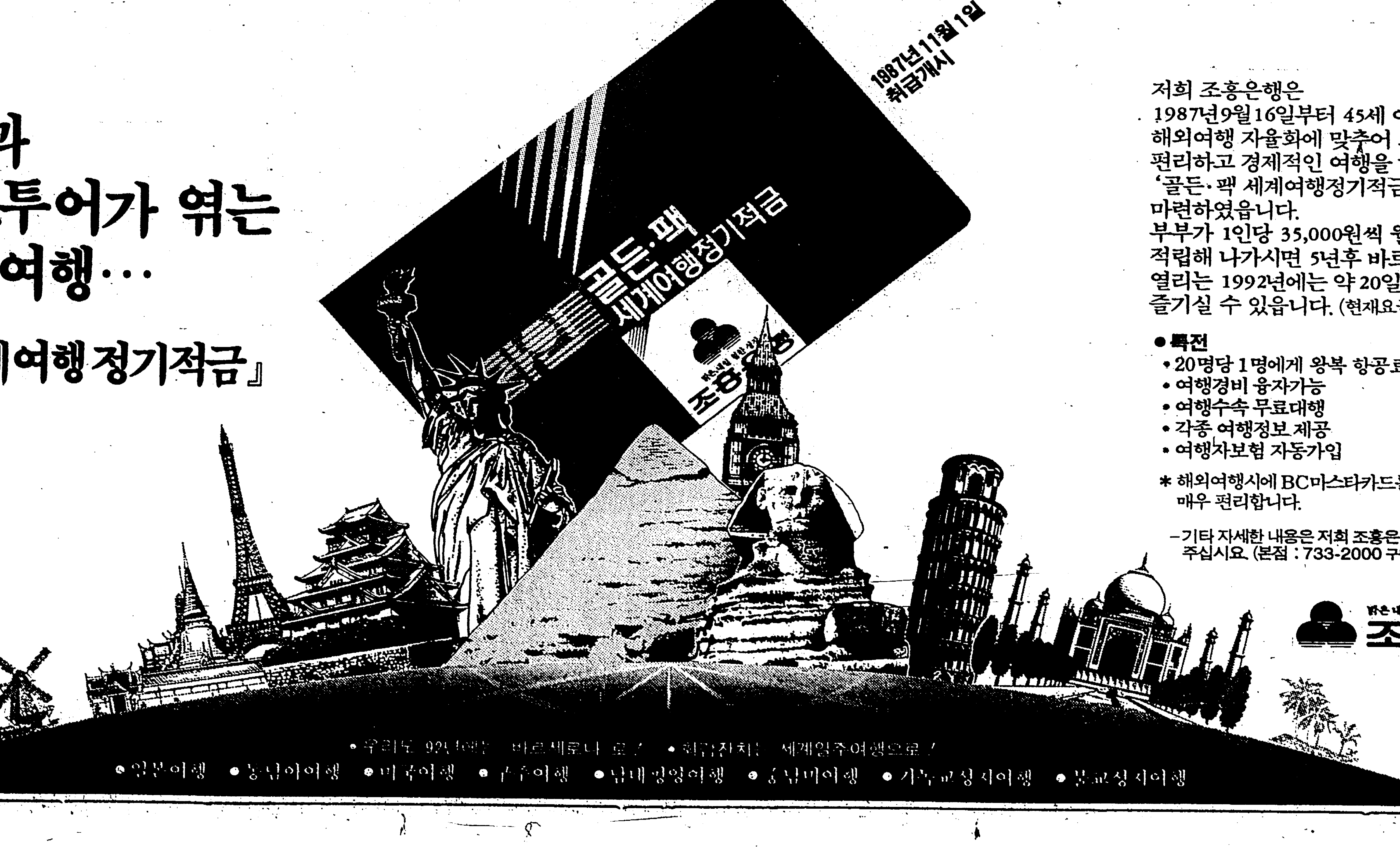
『골든·팩 세계여행정기적금』

저희 조흥은행은
1987년9월16일부터 45세 이상의
해외여행 자율화에 맞추어 고객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골든·팩 세계여행정기적금'을
마련하였읍니다.
부부가 1인당 35,000원씩 월 70,000원 정도를
적립해 나가시면 5년후 바르세로나 올림픽이
열리는 1992년에는 약 20일간의 유럽여행을
즐기실 수 있읍니다. (현재요금 기준)

●특전
- 20명당 1명에게 왕복 항공료 무료
- 여행경비 융자가능
- 여행수속 무료대행
- 각종 여행정보 제공
- 여행자보험 자동가입

* 해외여행시에 BC마스타카드를 가지고 나가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흥은행 본·지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본점 : 733-2000 구내2748)



골든·팩이란
Golden Age+Package Tour의
합성어로 저희은행
세계여행정기적금의 이름입니다.

밝은내일 힘찬성장 조흥은행

• 우리도 92년에는 바르세로나 로! • [illegible] 세계일주여행으로!
• 일본여행 • 동남아여행 • 미국여행 • 구주여행 • 남태평양여행 • 중남미여행 • 기독교성지여행 • 불교성지여행